



주간 통일정세

2011-3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은, 김정일 러·中 방문기간에 비상대기"(8/29,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러시아·중국 방문 기간에 그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공식 활동을 자제한 채 비상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양국 방문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를 과시한 것"이라면서 "러시아 방문은 동맹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적 실속을 챙긴 측면이 있다. 중국은 소통 차원에서 가서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난 것"이라고 분석
 - 특히 방러 결과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다"면서 "러시아는 '북핵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얘기했다'고 하는 등 간격이 있으며, 러시아가 잘못 발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단 시간에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리를 짧게 한 것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고,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대해선 "주야로 쓰고 하는데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힘.
- 北, 김정일 외국순방 연일 대대적 '극찬양'(8/30,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30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귀환하는 길에 중국을 방문한 성과를 9천여자나 되는 상보로 내보내며 "조중(북중) 친선의 연대기 위에 빛나게 기록될 것"이라고 찬양
 - 또한 중앙통신은 같은 날 속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이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과 함께 자신의 외국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특별공연에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잇따라 전함.
 - 앞서 평양방송은 지난 28일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이라는 외국방문 기사에서 "우리에게는 천하무적의 강자이시고 연전연승의 역사만을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신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유도
 -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처럼 북한이 김 위원장을 찬양하고 그의 외국방



- 문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는 몇가지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
- 뇌졸중으로 한때 쓰러졌던 김 위원장이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칠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 등장 이후 권력이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엘리트 및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또한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방중에 이어 이번에도 국경으로 마중나간 것도 충성심을 내보이려는 행보로 보이며, 북한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외국방문 성과를 띄움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산증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총리, 함흥 주요산업시설 시찰(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함흥 지역의 주요산업시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중앙통신은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협의회에서는 조선의 기술과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중요대상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 당 길데 대해서 토의했다"고 소개

● **"해군기지는 북침기지"…北 대남선동 강화(8/3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진중공업 사태 등 남측의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보수진영을 비난하는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등 전 매체를 동원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제주 해군기지를 "북침 전초기지·MD(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기지"라고 주장
- 또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시위와 관련, 이른바 '희망버스'가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지역주민의 시위 반대 움직임을 "보수단체의 매수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기사도 7~8월 10여 차례에 걸쳐 내보냄.
- 북한 매체들이 남측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각종 시위를 선동하는 주장을 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최근 관련 보도의 횟수가 잦고 다루는 대상이 다소 넓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고 대남선동을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

● **김정일, 희천발전소·용림군 현지도(8/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려,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귀환



한 직후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현장과 용림군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전천-용림언제(댐) 도로를 따라 희천1호발전소 용림언제에서 발전소 건설과 전천-용림언제 도로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건설장을 여러 곳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전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과업들을 제시했고, 수력발전소 건설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전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의 희천발전소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태종수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당 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또 희천발전소 인근 장자강 상류의 용림군에 새로 건설된 물놀이장, 용림군문화회관 등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여야 한다"고 독려
- 용림군 현지지도에는 김정은과 리영호 부위원장, 김영춘 부장, 장성택 부위원장, 김정각 제1부국장, 박도춘·태종수 당비서가 수행했고 김윤식 용림군당 책임비서와 류성국 용림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현지에서 영접

● "北, 통일장관 교체에 기대감 표시 안 해"(8/31, 교도통신)

- 북한 당국자가 남한의 통일장관 교체에 대해 "후임자(류우익 통일장관 내정자)도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며 기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
-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은 31일 평양에서 교도통신 등과 회견을 열고 현인택 통일장관이 물러나는 데 대해 "후임자도 (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라며 "(통일장관 교체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김 부국장은 또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7월에 나가이 히로시(中井滄) 일본 전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송) 대사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사실 관계를 부정

● '임수경과 인연' 北리금철 개성공단 총국장 부임(9/1,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초 개성공단 사업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자리에 '리금철'이라는 인물을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일 정부 당국자를 비롯한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김일근(55)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을 경질하고 리금철을 새 총국장으로 임명
 - 정부 당국자는 "예전에 임수경씨가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을 때 임씨 안내를 맡았던 리금철이 총국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체된 시점은 3월로 추정된다"고 말함.
 - 북한 관영매체는 2008~2010년 리금철의 직책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평양시 청년동맹 1비서' 등으로 소개했지만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한 대북전문가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북한에서 차관급으로 높은 직위에 속한다"며 "과거 리금철이 맞다면 현재 진행되는 김정은으로의 세대교체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김영남 "북일관계 개선 日새정권 태도에 달려"(9/1, 교도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취재진과 회견을 열고 정체된 북일 관계의 개선은 "일본 새 정권의 태도에 달려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또 북일 관계가 장기간 냉각된 데 대해 "(일본이 2002년 9월의 북일 평양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
 - **北인권단체 "외교부가 탈북자 인권침해" 제소(9/2,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2일 각국 영사관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탈북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를 인권침해로 제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한국 영사관에서 생활해오던 10여 명의 탈북자가 지난 7월 영사관 측에 항의하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그들이 영사관을 떠난 것은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방치 때문"이라고 주장
 - 또 "영사관은 일부 탈북자에 대해 퇴거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각국 이민국 수용소를 찾은 한국 외교관이 탈북자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욕설·구타한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해 외영사관 내 탈북자 인권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회천발전소건설장' 현지지도(8/31, 중통·중방)
 - 김정은, 이영호, 김영춘, 장성택, 김정각, 박도춘, 이명수, 김원홍, 현철해 동행
- 김정일, 자강도 '룡림군' 현지지도(8/31, 중통·중방)
 - 김정은, 이영호, 김영춘, 장성택, 김정각, 박도춘, 태종수 동행
- 김정일, 회천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1,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외국방문 성과 축하 '공훈국가합창단 특별공연' 진행(8/29, 중통)
 - 김정일, 김정은, 리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리명수, 김경욱, 김명국,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김영철, 윤정린, 현철해 등 관람
- 黨 군사총·국방총, "김정일의 외국방문(러시아·중국) 성과" 축하 연회 개최(8/29, 중통·중·평방)
 - 김정은, 리영호(축하연설),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리명수 등 참석
- 김정일 러시아방문 관련 "北-러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불멸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再次 극찬(8/30, 중통·노동신문)
- 최영림(내각 총리), 8.29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8/30, 중통·중방)
- "김정일의 러시아·중국 방문은 인민을 더욱 굳게 묶어 세우며 조국의 전진속도가 한계단 비약하는 역사적 계기" 강조 및 "2012년을 향한 총공격전에 드세찬 박차를 가하자"고 독려(9/3, 중통·민주조선)
- 최영림 내각총리, 9.1~2 회천발전소 건설정형 현지요해(9/3, 중통)

나. 경제

● 중업체가 北대동신용은행 경영권 인수(8/29, 연합뉴스)

-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합작은행으로 알려진 대동신용은행은 29일 홈페이지(www.daedongcreditbank.com)를 통해 외국인 지분을 중국의 세계 제조업체인 나이이스(納愛斯) 그룹에 매각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동신용은행 대주주인 피닉스커머셜벤처(PCV)는 성명에서 "(PCV가 보



유한) 외국인 지분을 매각했고 외국인 이사진도 즉각 퇴진했다"고 밝힘.
 - 니콜 카위 은행장은 "대동신용은행에 이어 2003년 북한 내 두 번째 합작사로 설립한 하나전자가 실적이 좋아 최근 본사 건물을 마련하고 영업망도 확충했다"며 "지난 16년간 이 은행의 실적이 좋았으나 하나전자 경영에 전념하려는 상업적인 이유로 지분을 넘겼다"고 말함.

● **"美여행사, 금강산호텔 이용 관광 상품 출시"(8/30, 미국의소리(VOA))**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가 2012년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금강산호텔을 이용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
 - 이 여행사는 보도자료에서 "내년부터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지구에 있는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현대아산이 소유한 금강산호텔은 북한이 지난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남측 자산에 포함돼 있어 외국 관광객에 개방될 경우 논란이 예상

● **"남·북·러, 11월께 남북가스관 실무협상"(8/30,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남북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표는 이날 인천 '한나라 인천포럼' 및 강원도 홍천 당원연수회 특강에서 "가스관 사업이 한·러시아 간에 합의됐고 북·러 간에도 합의돼 이제 3자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하면 남북가스관 사업은 이뤄진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홍 대표는 "11월쯤 되면 러시아 연해주의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을 거쳐 동해 지역으로 내려온다. 대공사가 시작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가스관 통과비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이익금보다 많은 연간 1억 달러 정도 되며, 우리는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면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20~30% 싸진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가스관 사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으며, 일단 북한이 문을 열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10년 구상으로 추진해 온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25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부담하는 문제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
 - 홍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는 '쓰리 트랙'으로 움직인다"면서 "첫 번째는 북핵을 6자회담에서 푼다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문제로 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뤄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인도적 지원과 경협 문제"라고 밝힘.
 -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 고칠 수 없지만 세 번째 트랙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은 이미 정부가 빗장을 풀었고, 경협 문제는 인도적 지원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웍더독'이란 말이 있듯이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할.

- **"러, 하산-나진 철로로 北에 밀가루 지원"(8/30, 프리마미디어(PrimaMedia))**
 -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5만t의 밀가루 가운데 제2차 공급분이 9월 중 새로 보수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 구간 철로를 이용해 운송될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인 프리마미디어(PrimaMedia)가 30일 보도
 - 이와 관련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앞서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과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2km 철도 구간 보수 공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현재 러시아 철도당국이 추진하는 보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 이사예프는 그러면서 "9월이면 벌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식량이 하산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北 "나선-금강산 국제관광 시작, 만경봉호 출항"(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나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국제관광단의 해상관광이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나선시에서 나선-금강산 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4박5일 일정의 이 관광은 조선의 동북단 라선시에서 화객선 만경봉호를 타고 조선동해를 유람하면서 금강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세계에 이름난 구룡연과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일대 등을 탐승하게 돼 있다"고 전함.
 - 이번 시범관광에는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일본 등의 투자기업과 관광회사 관계자, 중국 동북3성 대표단, 미국의 AP와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아사히신문, 홍콩의 봉황TV, 중국의 환구시보 및 CCTV, 동북3성의 흑룡강신문·길림신문·요령신문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달라진 北 나선특구..중.러 노동자 목격"(9/1, 38North)**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대북교류재단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4박5일간 북한측의 초청으로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에 다녀온 경험을 31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에 소개
 - 투자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나선경제특구로 향한 아브라미안 대표는 "지난 6월에만 해도 3시간 30분 걸리던 50km 구간이 나선경제특구의 첫 번째 단계인 도로확장 공사로 넓어져 차량 간 추월이 가능해 졌을 뿐 아니라 시간도 2시간 20분으로 단축됐다"고 전함.
 - 그는 도로공사 등에 상당수 중국기업이 투자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을 통



- 한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른바 '부린(富隣, 이웃국가와 더불어 잘산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
- 그는 아울러 도로의 상당부분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철길이 있었으며, 인근 철도 공사장에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약 150명에 달하는 러시아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소개
- **FAO, 30년간 6천400만달러 대북 농어업지원(9/1, 미국의소리(VO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0년간 북한에서 보존농법 기술전수 등 200여개 사업을 통해 총 6천4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 이 방송은 FAO의 '북한과 FAO: 성과와 성공사례' 보고서를 인용해 "감자, 콩 재배 등 농업과 과일 재배, 원예, 농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 통제 등의 분야도 지원했다"고 밝힘.
 - FAO는 "2002~2005년 북한 내 20개 협동농장 농경지 2천ha에서 적용한 환경친화적인 보존농법이 배추 재배 등 원예업에도 활용되는 등 주류 농법으로 부상한 게 주요 기술전수 성과 중 하나"라고 밝힘.
 - **WHO, 2012~2013년 대북사업예산 30% 감축(9/1,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2013년도 대북사업 예산이 작년과 올해 2개년 예산(3천700만 달러)보다 약 30% 줄어들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WHO는 예산보고서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한 회원국들의 예산감축 의견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북한 지원사업 예산을 2천600만 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WHO도 다른 유엔 기구들처럼 대북사업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말까지 모금액이 2010~2011년 예산 3천700만 달러의 56%인 2천83만 달러에 그침.
 - **"北, 러시아 토지 임대해 농사 추진"(9/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일 전함.
 - 이 방송은 "조선(북)이 극동에서 러시아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며 북한 농업성 대표단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무르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현재 아무르주에는 20만ha의 빈 땅이 있다"며 "1일 러시아와 조선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첫 회담을 진행했다"고 소개
 - **美, 북한 수해복구 구호물품 주말께 지원(9/2, 연합뉴스)**
 - 미국이 지난달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약속한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 지원이 수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힘.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구호 물품을 실은 화물기가 주말께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에 (물품 구입을 위한) 자금을 건넬 것"이라고 말함.

● "北, 이란에 어뢰 배터리 수출"(9/4, 위키리스크)

- 4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2009년 7월 21일자 비밀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7월 9일 북한이 베이징서우두(首都)공항을 통해 어뢰용 배터리를 이란에 수출하고 관련 기술진을 파견한 사실을 포착
- 이후 미국 대사관은 관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군축사(司, 한국의 국해당) 양 부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중국 측이 북한과 이란 사이의 화물 및 인원의 이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촉구
- 양 부사장은 미국 측의 지적에 대해 증거와 자세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향후 검색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 부사장은 미국이 문제 제기한 어뢰용 배터리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안에 저촉되는 것이냐는 물음을 제기했고 미국 대사관 관리는 위반이 '자명하다'고 반박



■ 기타 (대내 경제)

-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에 출품(180여종, 3만여점)된 축전지(대동강축전지공장)·유기질복합비료(라선백석합영회사) 등好評 및 수출입계약체결 등 선전(8/29, 중통)
- 나선-금강산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 출항식', 8.30 나선시에서 진행(8/30,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8.29 '희천발전소 대형물길굴 완공'에 관한 상보 발표(8/30, 중통)
- '北-러 가스수송관 건설계획' 등 "조선반도의 에너지공동계획은 정치·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8/31, 중통)
- 북부 철길 개건보수를 다그치기 위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꺾기모임, 8.31 최룡해(黨비서), 조병주(내각 부총리), 임철웅(철도성 참모장) 등 참가下 만포시에서 진행(9/1, 중방)
- VOA(미국의 소리)방송인용, 아시아태평양여행사(美 일리노이주)의 '2012년 北 여행상품' 소개(9/2, 중통)
 - 2012년부터 금강산 관광객들은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돌 행사 진행 속에서도 여행 진행 및 6월~9월까지 백두산·칠보산·함흥·원산 등이 포함된 새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
- 안악군 청년전위들의 가을걷이 꺾기모임, 9.1 오크리에서 진행(9/2, 중방)
 - 이화진(황해남도 黨 비서), 이항준(청년동맹 비서), 이창성(안악군 청년동맹 제1비서/보고) 등 참가
- '라선-금강산 관광' 진행(8.30~9.2/4박5일) 관련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박철수 총재),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 및 휴양,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9/3, 조선신보)

다. 군사

● 체니 "모사드, 北-시리아 핵공조 정보 제공"(8/31, 연합뉴스)

- 지난 2007년 시리아가 건설했던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 미국은 양국 간 핵 협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디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체니 전 부통령은 30일 발간된 자서전 '나의 시대(In My Time) 개인적, 정치적 회고록'에서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최고 책임자가 백악관을 방문, 이런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직접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소개
- 그는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4월 중순 모사드의 메이어 다간 국장이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해 스티브 해들리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에서 자신에게 시리아의 사막 지역에 있는 건물의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줬으며, 모사드가 시리아의 은폐



-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로가 가스냉각 방식의 흑연감속로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외부로 노출된 전력선이 없는 것 등으로 미뤄 전력 생산용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함.
- 특히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건설한 영변 원자로와 시리아의 원자로가 크기와 용량 등에서 거의 같다는 점에 놀랐으며, 북한이 당시 가스 냉각식 흑연감속로 원자로를 건설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의 관여를 사실상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
 - 그는 이와 함께 당시 미국의 정보당국자도 자신에게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은 199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1년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직접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힘.
 - 더욱이 모사드가 내놓은 자료 중에는 북한의 핵시설 담당자가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원자력에너지기구(SAEC) 책임자와 나란히 찍은 사진과 북한의 6자회담 대표단에 포함됐던 인사의 사진도 있었다고 소개
 -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로 인한 이익을 챙긴 뒤 또다시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했다"면서 "그들은 '벼랑 끝 전술의 달인들(masters of brinkmanship)'이었다"고 평가

● IAEA "北 우리늄농축 시설 암시장서 구매"(9/3, AP통신)

- 북한이 우리늄 농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란과 마찬가지로 암시장 공급자들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
- 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이 입수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영변 우리늄 농축시설을 견학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이 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치 형태와 덮개의 크기 등이 비밀 공급조직이 판매해 온 장비의 설계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
- 북한이 자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우리늄 농축설비가 실은 암시장을 통해 조달됐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비밀 공급조직이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 연계된 공급책 일 것이라는 추정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는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핵 기술을 거래해 온 인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칸 박사와 연관된 암시장 공급책을 통해 영변 우리늄 농축 설비를 구축했을 것으로 분석

라. 사회·문화

● "北, 외국인 전용 휴대전화망 폐쇄"(9/1,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던 휴대전화망 '선넷'이 작년 말 폐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 이 방송은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0년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2002년부터 소유와 경영을 해온 제2세대 휴대전화사가 작년 4분기에 폐쇄됐다"고 전함.
- 보고서는 북한이 폐쇄한 업체명이나 폐쇄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 가동돼 온 2세대 휴대전화 회사가 하나뿐인 점을 감안할 때 선녘이 분명한 것 같다고 설명
- 북한은 2002년 태국 통신회사 록슬리와 제휴해 2세대 휴대전화사업을 시작했으나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용천역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으나 기존의 휴대전화망을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망 선녘을 운영하기 시작
- 평양에서 유학 중인 한 러시아인 유학생은 "북한당국이 선녘이라는 외국인용 통신망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북한주민이 쓰는 고려링크와 연계통화가 안되고 요금과 전화번호 체계도 다르다"고 전함.
- 한편 오라스콤 텔레콤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66만6천517명임.

● 국제적십자사, 北대학 휴교령 확인(9/2,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대학의 휴교령을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
- 보고서는 "대학생들이 평양시와 다른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동원됨에 따라 모든 대학이 6월에 휴교했고, 2012년 4월까지 이 조치가 이어진다"며 "2012년 4월은 북한 지도자(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때"라고 밝힘.
- VOA는 보고서에 북한적십자사회 관계자의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휴교에 관한 내용이 북한 당국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이 이처럼 대학생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는 것은 대학생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 비해 통제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힘을 잘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이 방송은 전날 "북한 대학생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노력동원'을 거부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의 효율이 높다"며 "북한 당국이 사회의 부조리에 물들지 않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 기타 (대내 경제)
 - 전국자연환경보호부문 과학기술토론회, 8.30 정영남(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부위원장/개막연설)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30, 중통)
 - 北 고려의학과학원과 조선컴퓨터센터, 전국적 '원격고려의료봉사 체계' 확립 및 '고려의술' 홈페이지 개설(8/31, 중통)
 - 조선노동당 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96)' 출판(9/3,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10월 방북"(8/30, 자유아시아방송(RFA))
 -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이 대(對)북한 의원외교를 위해 10월1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유럽연합(EU)의 마르셀 로이엔 한반도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엘러 단장 이외에 누가 방북단에 포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리비아 과도정부 승인유보, 카다피 때문?(8/30, 연합뉴스)
 - 리비아 반군이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를 쫓아내고 출범시킨 리비아 과도정부의 승인 여부를 놓고 북한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 트리폴리 시내 주리비아 북한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각) 취재진이 리비아 반군 대표기관인 국가과도위원회(NTC)를 리비아 합법정부로 인정했는지를 묻자 "아직... 두고 봐야지"라고 짧게 답했으며, 이는 아직 NTC를 합법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란 뜻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정권과 카다피 정권은 그동안 나란히 '제국주의' 미국에 맞선다는 기치를 내건 데다 정치체제상 독재정권이고 권력의 부자세습을 추진하는 등 공통점이 적지 않아 서로 '맹방 중의 맹방'으로 우대해 왔으며, 특히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해왔고, 리비아가 과거 핵개발을 추진했을 때 북한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음.
 -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카다피의 운명이 확인될 때까지는 NTC를 환영하는 입장을 낼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나, 맹방인 중국까지 최근 "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반군세력을 인정했고 대(對) 아프리카·중동외교에서 리비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국 과도정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이란 국회의장 4일 북한 방문(8/31, 연합뉴스)

-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이 4일부터 3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이란 의회 웹사이트가 지난달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웹사이트는 또 이란 국회의장의 이번 북한 방문이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라리자니 의장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중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소개

● 北외무성 대표단 내주 EU 방문(9/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이달 둘째 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유럽 연합(EU)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EU 집행위원회의 브람 브랜즈 대외협력국장은 이 방송에 "궁석용 북한 외무성 부상이 EU 집행위와 이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상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일정은 하루 정도로 안다"고 밝힘.
- RFA는 또 브랜즈 국장이 2008년 폐쇄된 평양의 EU 대표부가 재개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30일 궁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유럽 국가순방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한편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오는 10월 북한과 의원외교를 위해 방북할 예정

■ 기타 (대외 일반)

- '北-쿠바 대사급외교관계' 수립('60.8.29) 관련 "反帝자주, 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쿠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연대성 표명(8/29, 중통·노동신문)
-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한다는 의견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한 것' 관련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이 끼어들어 중재하고 싶다면 분쟁문제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상식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비난(8/30, 중통·민주조선)
- 北 외무성, 8.31 '블랙불가담운동' 창립(9.1) 50돌 즈음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연회 개최(8/31, 중통)
 - 박의춘 외무상, 各國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참가
- 北 인민보안부친선참관단(단장 : 김철웅 인민보안부 참모장), 9.2 中國 공안부장(멍지엔주)과 베이징에서 담화(9/2, 중통)



3. 대남정세

● 개성공단업체, 정부에 대출상환 유예 요청(8/31,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경영 악화로 정부에 대출금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31일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기업대표자회의'는 지난주 후반 40여개 입주기업의 서명을 받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
- 기업들은 건의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업인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힘겨운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본 체력이 떨어져 존폐 위기에 처한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입주기업들은 건의문에서 ▲근로자 합숙소 건립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퇴근 도로의 개보수 ▲'5.24 조치'로 중단된 16개 업체의 공사재개 허용 ▲공단 내 소방서 및 의료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요청

● 北 "남측 금강산 국제중재 제소하면 망신자초"(9/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재산권 처분에 법적·외교적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 국제관광이 추진되는데 당황해 양탈을 부리고 있지만 명백히 말하건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정부가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해 국제분쟁해결 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우리는 제소할 테면 하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중재재판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을 때 성립 된다"고 주장

● 박근혜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돼야"(9/1, 연합뉴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박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출석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자신의 기고문이 게재된 것을 계기로 외교·안보분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함.
- 그는 기고문에서 언급한 '신뢰외교'에 대해 "힘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신뢰를 우선해 배려할 때 국가 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고, '균형정책'에 관해서는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안보-교류협력간 균형과 남북관계와 국제공조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

-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측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으나 "북측의 의미 있는 조치가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함.
- 박 전 대표는 남·북한-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1998년 국정감사 당시 파이프라인 연결을 주장했었다"면서 "기고문에 언급한 유라시아 철도는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모두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강조

● **민화협, 5차분 밀가루 154t 北에 전달(9/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154t(약 8천 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민화협의 이번 지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본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26일 1차분 300t 전달 이후 다섯 번째임.

■ **기타 (대남)**

- 北,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표한 성명(8.15) 등을 거론하며 "南 인민들이 반민족,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8/30, 중통)
-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의 대통령 통일정책특보 내정 관련 "南 당국의 기만극 연출"이라고 비난(9/2, 중방)
 - 괴뢰 집권세력은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직에서 해임시켰다고 하지만 대통령 통일정책특별보좌관 자리에 옮겨놓고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종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음.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6자회담 실패... '北=실패정권' 역사가 입증"(9/1)

- 미국의 거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1일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1년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에 참석한 햄리 소장은 기조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6자회담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성공을 예견하고 기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6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5개 참가국이 이 지역(동아시아)의 안보를 달성하고 북한이 합법한 행동을 통해 합법적인 국가가 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은 이웃국가를 협박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며 그것이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줄 것"이라며 "그같은 북한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진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라며 "우리가 시작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계적 역지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햄리 소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내 및 주변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은 북핵보다 북한의 불안정과 붕괴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등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에 있었는데 베이징 관계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목격했다"며 당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전하며 "중국에 천안함 사건은 남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옵션'이 됐다"고 설명했다.
- 햄리 소장은 "미국이나 중국, 한국은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계속 게임을 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 남북한은) 안보 담당자들과 그렇게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발적 상황이 가장 큰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관련, "국방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아시아는 여전히 최고의 우선순위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파워 공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기존 (국제질서) 시스템 내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北 우라늄농축시설, 암시장 통해 건설"(9/3)

- 북한이 지난해 미국 핵과학자에게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암시장을 통해 건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적했다.
- 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이 입수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견학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이 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치 형태와 덮개의 크기 등이 비밀 공급조직이 판매해 온 장비의 설계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 IAEA는 이와 함께,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 일부를 이 같은 비밀 조직으로부터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건설된 시기는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한 지난 2009년 4월 이후일 것으로 IAEA는 추정했다.
- 북한이 자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우라늄 농축설비가 실은 암시장을 통해 조달됐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비밀 공급조직이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 연계된 공급책 일 것이라는 추정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음.
-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는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핵 기술을 거래해 온 인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칸 박사와 연관된 암시장 공급책을 통해 영변 우라늄 농축설비를 구축했을 것으로 분석해왔음.
- 한편,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란에 제공했다는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IAEA 외교소식통들은 아직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지난달 독일 유력 일간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국이 개발한 핵 관련 특수 프로그램을 입수했으며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란 국방부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나. 미·북 관계

● "美여행사, 금강산호텔 이용 관광 상품 출시"(8/30)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가 2012년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금강산호텔을 이용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 이 여행사는 보도자료에서 "내년부터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지구에 있는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 현재 금강산관광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원산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강산호텔을 외국인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아산이 소유한 금강산호텔은 북한이 지난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남측 자산에 포함돼 있어 외국 관광객에 개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 또 아시아태평양여행사는 내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백두산 관광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VOA는 밝혔다.

● "北, 美에 사이버공격 가능성 있다"〈WP〉(8/30)

-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30일 미국 전직 관리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음.
- 지난해 사이버전(戰)에 대한 책을 공동 집필한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관은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지만 언젠가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클라크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비이성적인 행태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은 종종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인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향후 미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 북한은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지난 3·4 디도스 공격, 그리고 지난 4월 농협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올해 3·4 디도스 공격에 대해 미국의 컴퓨터 보안업체 맥아피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위협분석 담당 부사장은 북한이 한국의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 농협 사이버테러를 분석한 맥아피의 다른 연구원 게오르그 위치스키는 "그들(북한)은 간단한 방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이를 '사이버 전쟁 101'로 규정했음. 실제 농협은 이번 전산장애 사건 이후 2015년까지 5천1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전산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음.
- WP는 한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명확하게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을 연구한 서방 전문가들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평양 세계태권도대회에 美대표단 참가(9/2)

- 평양에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7차 세계태권도대회에 미국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음. 방송은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 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전 세계 80여 개국 1천여 명이 대회 참가를 신청했고, 미국 대표단 12명이 참가한다고 전했다.
-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태권도연맹은 북한이 주도하는



단체로, 남한이 이끄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구별됨.

● "美NGO 북한에 수해구호품 90t 공수"(9/2)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2일 북한에 수해 구호물품 90t을 공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 구호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의 더글러스 국제공항에서 보잉747 화물기에 실리고 북한의 강원도와 황해도 수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임.
- '사마리탄스 퍼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비정부기구(NGO)가 미 정부의 지원으로 의약품, 위생용품, 정수기, 이불 등 구호물품을 마련했음.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물품의 분배상황을 감시할 예정임.

다. 일·북 관계

● 日 총리, 조선학교 무상화 심사 재개 지시(8/29)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사임을 앞둔 29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는 절차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음.
- 간 총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한국 연평도를 포격한 뒤 조선학교 무상화 적용 심사를 중단했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가 포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점을 심사 재개의 이유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이에 따라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은 수업료 무상화 심사를 재개했음.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전문가 회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조선학교 10개교가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학생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학교 측에 지원됨.

● <한일병합 101주년에 北 대일 비난수위 높여>(8/29)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격한 논평을 쏟아냈던 북한이 한일병합 101주년을 맞은 29일에는 조약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음.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한일합병조약은 빈 종이장에 불과한 사기문서'라는 글을 통해 "101년 전 일제는 비법불법의 방법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해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다"며 "조선을 노예로 전락시킬 흥심 밑에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러"라고 비난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당시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고종 황제가 있던 덕수궁을 완전히 포위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황제를 협박해 이완용 친일내각을 통해 조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 이 매체는 "군사적 위협, 강압은 조약이 비법불법의 사기문서가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일본 반동들은 여전히 독도정밀지도를 만든다,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검정합격관정을 내린다, 조선동해를 '일본



해로 표기한다 어쩐다 하며 실질적인 독도 강탈과 조선반도 재침착동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음.

- 또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사대매국적인 남조선 당국의 친일굴종행위와도 관련 된다"며 남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음.
- 평양방송도 이날 '한일합병조약 날조 101돌 반향-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들'이라는 기사에서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조명했음.

● "日 방송 김정일 방러 영상 1천만 원에 사려했다"(8/31)

- 일본 TV 방송사들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그가 현지 쇼핑물을 구경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자료 화면을 1만 달러(약 1천만 원)에 구매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송사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 올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올란우데 시내를 관광하면서 대형 쇼핑물 '메가티탄'에 들른 장면을 담은 CCTV 자료 화면을 쇼핑물 측으로부터 확보하려 시도했음.
- 쇼핑물 관계자는 "(현장 취재에 나섰던) 일본 방송사 기자들이 처음에 자료 화면을 제공하는 대가로 1만 루블(약 37만원)을 제시했다가 매장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중엔 1만 달러까지 가격을 올렸다"고 전했다.
- 관계자는 일본 기자들이 자료 화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물 보안부서 직원이 자동차를 타고 매장을 떠나자 차로 그를 계속 추적하며 차장 유리 너머로 자료화면 가격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는 등 끈질기게 거래를 시도했다고 소개했음.
-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자들은 끝내 자료 화면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러 자료 화면에 일본 언론이 이처럼 과도한 애착을 보인 것은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공적1호 가운데 1명으로 통하는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대해 일본 언론이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의 쇼핑물 방문 당시 일반 주민들의 출입 통제나 쇼핑객 소개 등의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관례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소개했음.
- 당시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쇼핑물을 둘러보면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상품들에 다양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김 위원장은 매장에서 팔리는 식용유가 몇 종류나 되는지를 묻고 약 10가지라는 답을 듣자 북한에선 26가지의 식용유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김 위원장은 또 소시지 제품들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 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베이컨의 질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음. 김 위원장은 이어 통조림, 우유, 빵, 보드카를 비롯한 술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각별한 흥미를 보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쇼핑물을 떠나기 전 매장 대표가 소시지와 식품품 등이 담긴 선물 바구니를 선물하자 웃음을 지으며 받은 뒤 경호원에게 건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메가티탄' 쇼핑물 대표 바딤 브레드니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이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北 김영남 "북일 관계 개선 日새정권 태도에 달려"(9/1)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취재진과 회견을 열고 정채된 북일 관계의 개선은 "일본 새 정권의 태도에 달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음.
- 2일 출범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대북 정책 등을 한동안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김 상임위원장은 또 북일 관계가 장기간 냉각된 데 대해 "(일본이 2002년 9월의 북일 평양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에 의한 핵개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주목 하는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시카와 사토시(石川聰) 교도통신 사장과 NHK, 마이니치신문, 서일본신문 등의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방북해 31일에는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과 회견했음.

● 日교도통신, 평양서 지국개설 5주년 연회(9/1)

- 일본 교도통신사가 1일 평양지국 개설 5주년을 맞아 고려호텔에서 기념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연회에는 지난달 30일 방북한 이시카와 사토시(石川聰)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도통신 및 가맹사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김병호 사장 등 조선중앙통신사 관계자들이 초청됐음.
- 교도통신은 지난 2006년 9월1일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음. 대표단은 연회에 앞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과 회견했음.

라. 러·북 관계

● "러, 하산-나선 철도 통해 대북 밀가루 지원"(8/30)

- 러시아가 내달부터 하산과 북한의 나진을 잇는 새로운 철도를 이용해 대북 밀가루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음.
- 통신은 러시아가 이달 초 북한에 밀가루 5만t 지원을 약속했으며, 9월



중 하산역을 통해 지원이 시작된다고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통신은 북한이 핵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식량부족 상황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와 북한은 2008년부터 나진항으로 들어오는 동북아 지역의 화물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옮겨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운송하기 위해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은 개보수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러시아 토지 임대해 농사 추진"(9/1)

-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일 전했다. 이 방송은 "조선(북)이 극동에서 러시아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며 북한 농업성 대표단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무르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송은 "현재 아무르주에는 20만ha의 빈 땅이 있다"며 "1일 러시아와 조선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첫 회담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 이고리 고레보이 아무르주 대외경제장관은 "우리에게는 빈 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조선의 농장이 반드시 아무르주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마. 기 타

● 北 "나선-금강산 국제관광 시작, 만경봉호 출항"(8/30)

- 북한의 나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국제관광단의 해상관광이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나선시에서 나선-금강산 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의 출항식이 열렸으며 "4박5일 일정의 이 관광은 조선의 동북단 라선시에서 화객선 만경봉호를 타고 조선동해를 유람하면서 금강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세계에 이름난 구룡연과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일대 등을 탐승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 재일교포 북송수단으로 유명했던 만경봉호는 출항식 후 나진항을 출발했고 31일 강원도 고성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온 기자들이 시범관광을 취재하려고 만경봉호에 동승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이번 시범관광에는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일본 등의 투자기업과 관광회사 관계자, 중국 동북3성 대표단, 미국의 AP와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아사히신문, 홍콩의 봉황TV, 중국의 환구시보 및 CCTV, 동북3성의 흑룡강신문·길림신문·요령신문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중앙통신은 이날 "라선관광 지대에 호텔, 휴양지, 도로 등 관광기초시설들을 잘 꾸리고 조선라선 관광안내관, 조선민속전시관, 조선민속



음식전시관, 라선기념품센터 등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나라의 많은 기업가들과 관광전문가들은 라선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개발을 제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국제적십자사 北수해지원금 3% 확보"(8/31)

- 국제적십자사가 지난 19일 대북수해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442만 달러 모금을 호소했지만 29일까지 3%를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음.
- 국제적십자사는 30일 발표한 북한 수해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재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즉각 제공하려면 자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지금까지 핀란드 적십자사와 네덜란드 적십자사가 각각 7만 달러씩 기부했다고 RFA는 전했다.
- 국제적십자사는 국제사회에 수해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황해남도 청단, 연안, 봉천군의 수재민 3만 명(7천5백만 가구)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北외무성 대표단 내주 EU 방문(9/1)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이달 둘째 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 EU 집행위원회의 브람 브랜즈 대외협력국장은 이 방송에 "궁석용 북한 외무성 부상이 EU 집행위와 이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상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일정은 하루 정도로 안다"고 밝혔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30일 궁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유럽 국가순방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음. 궁 부상은 2004년 5~6월, 2005년 10월, 2008년 4~5월 각각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유럽을 찾은 바 있음.
- RFA는 또 브랜즈 국장이 2008년 폐쇄된 평양의 EU 대표부가 재개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한편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오는 10월 북한과 의원외교를 위해 방북할 예정임.

● WHO, 2012~2013년 대북사업예산 30% 감축(9/1)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2013년도 대북사업 예산이 작년과 올해 2개년 예산(3천700만 달러)보다 약 30% 줄어들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했다.
- WHO는 예산보고서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한 회원국들의 예산감축 의견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북한 지원사업 예산을 2천600만 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WHO는 예산을 2년 단위로 편성함.



- 북한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보건장관들은 다음달 6~9일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 참석해 예산계획을 확정함.
- 한편 WHO도 다른 유엔 기구들처럼 대북사업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말까지 모금액이 2010~2011년 예산 3천700만 달러의 56%인 2천83만 달러에 그쳤음.

● "외국투자자, 北 나선특구에 의구심" <FT>(9/2)

- 북한이 개발을 추진 중인 경제특구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과거 합작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신뢰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음.
- 신문은 북한이 지난 6월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나선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착공식을 가졌지만, 황금평 지역의 경우 투자계약을 맺은 기업이 아직 없으면서 이렇게 진행했음.
- 예전에도 비슷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나 신뢰성에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중국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업체가 선불리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북한은 2002년 위화도와 황금평을 포함한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중국이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네덜란드 화교 출신 양빈(楊斌)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음.
- 2006년에도 압록강 섬인 위화도와 비단섬을 연계한 신의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됐지만, 역시 중국이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음. 이런 과정에서 소문만 믿고 투자에 나섰던 중국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큰 손해를 봤던 것임.
- 북한이 지정한 나선특구는 1990년대 초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실패했던 지역이 일부 포함될 예정임.
- 장런구이(張連圭<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과거 다른 나라와 함께 일했던 북한의 경험이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남겼고 이는 새 특구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했음. 유엔의 대북 제재와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치 상황 등의 요인 때문에 이런 특구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임. 그는 이어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투자를 독려하고 지원하더라도 기업들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외국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퍼트레이어스 전 美사령관에 보국훈장 통일장(8/30)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대장)에게 보국훈장의 최고 등급인 통일장을 수여했음.
-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이라크 및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이툰 사단 등 파병 한국군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한미 동맹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훈장이 수여됐음.
-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날 대사관저에서 이 대통령을 대신해 통일장을 수여한 뒤 축사를 통해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의 세계평화와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아울러 영예로운 군 전역과 중앙정보국(CIA) 신임 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음.
- 군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공식 행사로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답사에서 "한미 간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상태로, 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는 영광을 가졌다"면서 "CIA 국장으로서는 강력한 양국 관계가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음.
- 주미대사관의 해군 무관 김효제 해군대령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의 부인 홀리 여사와 미군 관계자, 이서영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육군 준장) 부부 등이 참석했음.
-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은 리언 패네타 신임 국방장관에 이어 다음 달부터 CIA 국장으로 일하게 됨. 퍼트레이어스 전 사령관의 CIA 국장 인준안은 지난 6월말 상원을 통과했음.

● <오바마 "한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8/3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한국전 당시 미군의 참전 의미를 기렸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미 재향군인회 93차 총회에 참석, 미군의 그간 활약상을 회고하면서 한국전 참전 의미도 재강조했음.
- 그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 동맹군들을 부산 주변의 조그만 지역으로 몰아붙였을 당시 전쟁은 패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그러나 여러분,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반격을 했고, 피를 흘리는 세월을 거둬들이면서 싸웠다"고 말했음.
- 그는 "지난번 재향군인의 날 때 나는 서울에 갔고, 한국전 60주년 행사에 참전 용사들과 함께 참여했다"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인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60주년) 이정표를 찍었다"고 의미를 되새겼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9.11테러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의 값진 희생에 찬사를 보냈음.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우리의 병사들이 전쟁 지역에 나갔고, 그들은 매우 특별한 짐들을 졌다"면서 "지난 10년간 날마다 이들 남녀 병사들은 하나의 미국 팀으로서 함께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침통한 날(9.11 1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10년간 군복을 입었던 500만 명이 넘는 미군병사들, '9.11 세대'에 의해 이뤄진 10년간의 특별한 봉사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이 어려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6천 200명 이상의 미군들에게 겸허한 조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한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9.11테러 10주년인 다음달 11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리는 특별 추모행사에도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여야, 한미FTA비준안 美처리시점 맞춰 상정(9/1)

- 여야는 1일 미국 정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의회 제출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데 합의했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같이 의견을 접근시킴에 따라 상정을 미뤘음.
-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 시점에 대해 "9월20일 전후라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이 상정해야 우리가 상정한다는 것은 주권국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을 생각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미리 상정시점부터 약속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 때는 상정을 지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음.
- 남 위원장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 지는 시점에 우리가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 <韓美연합훈련..미군 최신 디지털장비 첫 투입>(9/1)

- 1일 경기도 포천시 영증면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의 최신 장비를 처음 투입한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이 열렸음. 이날 훈련은 육군 제26기 계화보병사단과 미2사단이 참가했음. 미군은 최신 M1A2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를 투입했음.
- 훈련은 취재진을 위해 20여 분간 시연을 한 뒤 오후 2시께 아파치 헬기와 코브라 헬기까지 동원해 본격적인 한미공지합동훈련을 진행했음.
- 미2사단의 최신 M1A2 전차와 한국군의 K-1 전차가 연이어 불을 내뿜



고 아파치 헬기와 코브라 헬기가 공중지원사격을 하자 로드리게스 훈련장 전체가 포성과 연기로 가득했음. 이날 선보인 M1A2 전차는 최고 시속 67.5km로 전장에서 중형 무진할 수 있으며 디지털 탄도 컴퓨터로 주·야간 이동 사격이 자유로운 게 특징임.

- 또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휘관독립탐색기(CIV)'를 장착하고 있어 특정 목표물 공격으로 시야가 좁아진 사격수에게 지휘관이 다른 적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음.
- 미군은 이날 사용된 M1A2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렀던 전투를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무기로 개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달에 60대를 한반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그러나 신형무기 내부를 공개하지는 않았음.
- 서먼(Thurman)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에 도입한 미군의 최신 무기는 한국군과 함께 하는 작전에 투입될 것이며 한미 양군에 강한 억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먼 사령관은 또 "최신 무기 배치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준비태세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음.

● 美의회, 통상법안 심의 개시..FTA '청신호'(9/3)

- 미국 의회가 이달 초부터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등 통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은 이날 "하원이 오는 7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GSP 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는 제도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오래전에 대상에서 제외됐음.
- 그러나 이 연장안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등과 함께 이른바 통상 법안 '패키지'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의회 심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미 FTA 절차도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GSP 연장안의 경우 의회 심의가 시작되면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 실제로 한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의 9월 회기가 짧은데다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을 우려했으나 의회가 빨리 움직이는 분위기"라면서 "하원의 GSP 심의 개시는 통상 관련 법안 처리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미 FTA 이행법안은 처리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여전히 미 정가에서는 행정부가 아직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의회가 이번 달 회기에서 예산



안과 특허개혁법 등 대형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나. 한·일 관계

● **李대통령, 노다 日총리에 축전(8/30)**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일본의 제95대 총리 취임을 앞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지명자에게 축전을 보냈음.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날 노다 지명자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로 지명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건승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日공사 불러 '위안부 문제' 성의 촉구(9/1)**

- 정부는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측과의 외교적 교섭에 착수했음.
-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현재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음. 이에 대해 가네하라 공사는 "한국 측의 설명과 요청 내용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생각"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주한 일본 공사를 불렀다"고 말했음.
- 조 대변인은 "외교적 조치 뿐 만 아니라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그 검토대상에는 중재위 회부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에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음.

● **日 노다 "야스쿠니 공식 참배 안 하겠다"(9/2)**

- 'A급 전범은 더는 전범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했던 일본 신임 총리가 "총리와 각료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식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파문 수습에 애썼음.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지금까지 내각의 노선을 계승해서 총리·각료의 공식 참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노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 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정치 등 종합적



인 판단에 따라 그런 것(공식 참배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내세웠던 '개인 자격' 참배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A급 전범은 더는 전범이 아니다'라는 야당 의원 시절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음.
- 주변국과 외교 방침에 대해서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기본 자세다"라며 "일중, 일한, 일러 등 근린제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 하겠다"고 일반론을 되풀이한 뒤 "경제 외교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 자원 외교, 다각적인 경제외교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다. 한·러 관계

● "한·러 정상회담시 가스관 문제가 주요 의제"(9/1)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이 대통령은 11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거나 러시아를 방문하는 방안 등 여러 복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연내에 한·러 정상회담이 1~2차례 열릴 수 있다"면서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협의하자고 한 적은 없지만 만약 한·러 정상회담을 한다면 가스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여서 북한내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상관없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무 협상이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아직 원칙적 수준인 데다 남·북·러 3자가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더 중요한 만큼, 가스관 건설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분석임.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처음 가스관 건설 논의를 시작한 20년 전에 비해 약간 진전된 상태 밖에 안 된다"면서 "남·북·러가 3자 협의체나 위원회를 만드는 문제도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러 가스프롬 관계자들 이르면 내주 방한할 듯"(9/4)

-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 관계자들이 이르면 다음 주 중 한국을



-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러 외교장관 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됨.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4일 "가스프롬 관계자들이 다음주 또는 그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알지 못하며 러시아 측의 설명을 일단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스프롬 관계자들은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가스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가스관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토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북한과 매우 강도 높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아냈다"면서 "우리는 가스프롬의 한국측 주 파트너인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는 구체적인 협의시점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가스프롬 사장에게 협의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해 조만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는 일단 한·러, 북·러 간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남·북·러 3자 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행사 특강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 러시아 연해주의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을 거쳐 동해 지역으로 내려온다. 대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 브누코프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남과 북을 상대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정 시점에서는 3자가 함께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스프롬의 방문계획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라. 미·일 관계

● 日 노다, 이달 하순 오바마와 회담 추진(9/1)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지명자가 이달 하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 지명자는 이달 21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뒤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노다 총리 지명자는 30일 미국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의 기축중의 기축"이라고 밝혀 동맹 강화에 의욕을 보였음. 오바마 대통령도 담화에서 "경제와 안전보장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과제에 대해 노다 총리 지명자와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음.
- 미국은 일본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의 참여를 바라고 있음.

● "오바마, 日에 후텐마 문제 해결 촉구"(9/4)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노다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오키나와(沖縄)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음.
- 미국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 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임.
- 미국과 일본은 작년 5월 말 후텐마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의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을 설득하지 못해 이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일본은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음.

마. 중·일 관계

● <中, '강성' 노다 선출에 촉각>(8/29)

- 역사 및 영토 문제에서 우익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54) 재무상이 일본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되자 중국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임.
- 중국 매체들은 29일 열린 일본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를 신속히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인터넷판에서 일본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노다 재무상이 중의원·참의원 의원총회에서 비록 1차 투표에서는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에 패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열세를 뒤집고 승리했다고 보도했음.
-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의원 480석 중 과반을 점하고 있어 30일 국회에서 노다 재무상이 총리에 지명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대외 문제에서 강한 우익적 성향을 보여 온 노다 재무상의 등장이 중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했음.
-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는 '노다 요시히코는 다편(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에서 강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제목으



로 노다 재무상을 소개했음.

- 중국신문사는 올해 54세인 노다 재무상이 일본 자위대 낙하산 부대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1987년 당시로는 일본 최연소인 29세의 나이에 지방의원이 된 인물이라고 전했다.

● 신화 "노다, 역사에 진지한 태도 보여야"(9/1)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지명자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진지한 역사 인식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음.
- 신화통신은 1일 '중일 관계를 격상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윈윈 관계를 정립하려면 아시아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하고 진지한 역사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통신은 "일본이 과거 세기 침략의 역사를 다룰 때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새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에서 그의 진정성과 비전, 지도력을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 통신은 중일 수교 40주년을 맞는 내년은 양국 관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두 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통신은 노다 지명자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난 29일에도 논평을 내고 일본의 새 내각이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음.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30일 노다 지명자에게 축전을 보내 수상 선출을 축하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 기 타

● "러, 中 견제 美日과 합동 해양 군사훈련"(9/1)

-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합동 해양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달 초순부터 미사일 순양함인 바르약호를 투입해 일본, 미국과 합동 훈련을 실시함.
-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은 우선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해에서 해난 구조 활동 훈련을 실시하고, 교토(京都市)의 마이즈루(舞鶴)에 기항한 뒤 미군과의 훈련을 위해 괌으로 이동할 예정임.
- 러시아는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안전보장 면에서 미국, 일본과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러시아,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의한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은 이달 초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떠나 일본, 미국과 훈련을 실시한 뒤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해 12월 귀국할 방침임.
- 러시아가 미국과 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006년 마셜제도에서의 훈련 이래 5년만이며,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도 2008년 이후 3년만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